

맥컬리스 아일랜드 대통령 내외를 위한 만찬사

존경하는 메리 맥컬리스 대통령 각하 내외분,

그리고 귀빈 여러분,

아일랜드 국가원수로는 처음 우리나라를 방문해 주신 각하와 일행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각하께서는 지난해 재선되시고 국민의 90%에 이르는 지지를 받고 계십니다. 특히 화해와 통합을 위한 각하의 '가교 건설' 제안은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일랜드는 '켈트의 호랑이'답게 정말 힘차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1987년 1만 달러 수준이던 국민소득이 지금은 3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에도 EU 평균의 두 배가 넘는 경제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인재 육성과 투자 유치, 그리고 노·사·정이 함께 맺은 사회연대협약을 토대로 이뤄 가고 있는 이 같은 성공은 우리에게도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각하와 아일랜드 국민의 저력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대통령 각하,

오늘 낮 각하와의 정상회담은 매우 유익했습니다. 우리 두 나라의 우호협력관계는 이제 한 차원 높은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양국은 IT·자동차·의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IT 분야의 교역은 전체 교역의 50%에 이릅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교육·문화·스포츠를 비롯한 인적 교류도 활발히 추진해 나가야겠습니다. 지난 11월에는 아일랜드의 대규모 통상·교육 사절단이 방한해서 상호협력방안을 협의했습니다. 각하의 이번 방한은 이러한 양국 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귀빈 여러분,

맥컬리스 대통령 각하 내외분의 건강과 아일랜드의 번영, 그리고 우리 두 나라 국민의 우정을 위해서 축배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